

雇傭職業能力開發研究  
 第16卷(2), 2013. 8. pp. 179~204  
 © 韓國職業能力開發院

##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발달 유형과 개인특성 및 진로지도 만족도의 관계

김 성 남\*

이 연구에서는 2011년에 실시된 ‘고졸자 취업진로조사(HSGOMS)’ 자료를 활용하여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발달을 이차원적으로 유형화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특성 및 진로지도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발달을 취업목표 설정과 진로준비행동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 기초하여 이차원적으로 유형화하고, 개인특성(성별, 계열, 성적, 전공 선택) 및 진로지도 만족도(학교 진로지도, 학교 취업지원, 가정 진로지도)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발달 유형은 A타입(29.9%), B타입(13.8%), C타입(25.0%), D타입(31.3%)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진로발달 유형이 개인특성 및 진로지도 만족도 관련 변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특성화 고등학교, 진로발달 유형, 취업목표 설정, 진로준비행동

투고일: 2013년 07월 01일, 심사일: 07월 05일, 게재확정일: 07월 29일

\* 서울대학교 (reo97@snu.ac.k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에 의하여 규정된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다양화하고 특성화하자는 데에서 출발하였으며,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에 대한 체제 개선 및 활성화의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과거 산업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특성화 고등학교는 1990년대 중반부터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대학 진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졸업생의 진학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됐는데, 특히 1991년에 7.8%에 불과하던 졸업생의 진학률이 2009년에는 73.5%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2010년 5월에 발표한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통해 전문계고를 분야별로 특화된 직업교육기관으로 개편하고, 선취업-후진학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무분별한 대학진학을 지양하고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최동선·이종범, 2013). 이러한 정책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2009년 16.7%에서 2010년 19.2%, 2011년 23.4%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 1월을 기준으로 42.3%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3년 2월 졸업을 앞둔 전국의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의 48.5%가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이러한 최근의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 증가는 정부의 취업 중심의 정책동향으로 인해 시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취업률 향상·유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발달 및 졸업 후 취업과 관련한 양상을 보다 면밀히 고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진로 관련 연구는 주로 일반계 학생과의 비교 연구(김성남·최수정, 2012; 신희경·김우영, 2005; 안선영·이경상, 2009)로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었으며, 특성화 고등학교의 진로문제를 구체적인 변인을 통해 조명한 연구들은 많지 않았다(김영순·손진희, 2012).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들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 초점을 맞춰 진로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들(김동규, 2012; 오석영, 2012; 이백령·김민배·문승태, 2012; 이지혜·정철영, 2010)이 수행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발달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특성화고 재학 시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을 준비한 학생들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고졸자 취업진로조사(HSGOMS)’ 자료를 활용하여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이차원적으로 유형화하고, 이러한 진로발달 유형과 개인특성 및 진로지도 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고졸자 취업진로조사’는 미(未)진학 특성화고졸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육-노동시장 이행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제공할 목적으로 2011년에 처음 실시된 횡단면 조사로서, 설문대상 및 문항 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료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발달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이차원적으로 유형화하고, 이러한 진로발달 유형과 개인특성 및 진로지도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취업목표 설정과 진로준비행동이 라는 두 가지 차원에 기초하여 이차원적으로 유형화한 결과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발달 유형은 개인특성(성별, 계열, 성적, 전공 선택)에 따라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3.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발달 유형과 개인특성(성별, 계열, 성적, 전공 선택) 및 진로지도 만족도(학교 진로지도, 학교 취업지원, 가정 진로지도)는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 발달

특성화 고등학교는 1998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육성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0.6.29. 공포)에서는 기존의 특성화고와 전문계고를 직업교육 특성화고로 단일화하였다. 일반적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고교 진학 시 자율적 선택보다 타율적 요인에 의해 입학한 학생들이 많으며, 고교 졸업 후 전공분야로의 취업과 대학진학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은 보다 다양한 접근법과 체계적인 지도가 요구되며, 특히 이를 위해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발달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진로성숙 등 진로발달 관련 양상을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오석영(2012)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진로결정 집단 및 연도별로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특성화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학결정, 취업결정, 미결정을 기준으로 집단별 진로결정 요인을 비교하였으며, 최근 2년간(2011년과 2012년)의 진로인식 변화추이를 확인하였다. 이때 진로결정 요인은 개인변수, 학교변수, 가정변수로 나누고, 각각의 하위 변인을 자기효능감, 학업성적, 미래직업 결정 여부, 자기 적성 인지 여부(이상 개인변수),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진로경험, 교사(이상 학교변수), 가정에서 부모와의 진로 관련 대화 경험(가정변수)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특성화고 입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특히 취업 희망자의 자기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학결정 요인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학과/학교 안내와 진로상담이 대학진학보다는 취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과 달리 2012년에는 가정에서

의 진로 관련 대화가 대학진학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해 학부모의 취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지혜·정철영(2010)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을 막는 여러 갈등 요소를 의미하는 '취업장벽'에 초점을 맞춰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식하는 취업장벽 인식수준을 분석하고, 취업장벽과 교육포부, 구직효능감, 진로미결정, 학교 및 가족특성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85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특성화 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취업장벽의 인식수준이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및 계열에 따른 인식 수준의 차이가 남학생>여학생, 공업>상업·관광>가사보건>농업계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직효능감과 취업장벽은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진로미결정과 취업장벽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장벽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4개 변인(진로미결정, 구직효능감, 성적, 취업 관련 경험) 중 진로미결정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김강호(2009)는 전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써 학교 진로지도경험(강연, 학교 및 학과안내, 진로검사, 직업체험, 진로상담) 및 개인·가정 변인(성별, 재학 중 근로경험, 미래직업결정 여부, 가정에서의 진로대화, 진로고민, 교과흥미 및 학업성적)의 효과를 구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의 전문계 고교생 2~3학년 자료(2006년~2007년)를 활용하여 무선효과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전문계 고등학교의 진로지도가 학생의 진로성숙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대화나 활동, 그리고 개인적 성향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규(2012)는 앞에서 살펴본 연구들과 같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고교 재학 시 진로특성에 머무르지 않고, 고교 진학 시 나타나는 진로선택(계열, 전공)에서의 자발성이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상용직 취업, 임금, 직장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에 실시된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때 임금근로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진로선택의 자발성은 자발적 이유(고교계열 선택은 '취업', '대학진학', '장래 꿈 및 기타', 전공 선택은 '직업 및 취업전망', '흥미 및 적성', '사회적 명성 및 기타')와 비자발적 이유(성적 및 주변 권유)로 구분하였으며, 이와 함께 통제변수로 개인특성(성별, 가계소득, 고교계열, 학교성적, 자격증, 직업교육훈련), 직장특

성(근로시간, 직장 종사자 수, 산업분야) 및 진로·취업지도(학교 진로지도 만족도, 학교 취업지원 만족도, 가정 내 진로지도)를 모형에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성적이나 주변의 권유 등 비자발적으로 특성화고와 전공을 선택하는 것보다 '취업', '대학진학', '직업 및 취업전망' 등 뚜렷한 목표를 갖고 진학을 한 경우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열선택 이유가 '취업'인 경우에는 상용직 취업과 임금, 직장만족도 등 모든 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학교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과 가정 내 진로지도가 고졸청년층의 직장만족도, 임금, 상용직 취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로발달 관련 이론에서 고등학교는 직업생활에 진입하기 이전의 잠정적인 준비 단계이자 탐색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잠정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진학과 취업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준비기로서 중요함을 가진다(이건남, 2008).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시기 중에서도 1학년이 동료집단의 문화와 교우관계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진로를 선택하는 '상호관계'의 단계라면, 고등학교 2~3학년은 직업에 대한 탐색과 아울러 자신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함으로써 직업선택의 대안을 점차 축소시켜 나가는 '자율성'의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Tuckman, 1974), 고등학교 2학년 시기 이후의 진로에 대한 인식과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교 졸업 후 진학과 취업이라는 두 가지 진로에 대한 선택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보다 강조되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미래의 직업을 탐색하고 계획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행동의 수행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진로와 직업' 등 교과목을 활용한 수업 외에 직업체험 및 현장실습, 직업특강 및 단기강좌, 모의면접 및 취업·창업캠프, 진로 관련 심리검사, 산업체 또는 졸업생 멘토링, 진로상담, 직업기초능력 및 자격증 양성, 산학협력 및 위탁과정 등이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실제적인 진로선택 및 취업 직전에 놓인 3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동선·이수경·김나라·정진철, 2010).

## 2. 진로발달의 이차원적 유형화

진로지도 및 상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진로결정수준 또는 진로미결정 등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었으며(Crites, 1969; Fuqua & Hartman,

1983; Gordon, 1995; Savickas, 1989; Wanberg & Muchinsky, 1992), 이와 함께 적성 및 성격(Walsh & Lewis, 1972), 흥미(Lowe, 1981) 등의 개인특성과 진로발달과의 관계, 진로와 관련된 개인의 의사결정 태도와 과정(Osipow & Reed, 1985) 등도 중요한 탐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김봉환·김계현(1997)은 진로지도 및 상담 장면에서 진로와 관련한 인지(cognition)나 태도(attitude)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내리거나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behavior)이 중요한 요소를 지적하면서, '차별적인 진단'과 이에 따른 '차별적인 처치'를 위해서는 진로결정수준과 함께 진로준비행동에도 관심을 가져야함을 제시하였다. 이때 진로준비행동이란 진로 목표 설정을 위해서 혹은 자신이 설정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행하는 다양한 준비활동을 의미한다.

김봉환·김계현(1997)은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진로에 대한 결정과 확신을 의미하는 '진로결정수준'과 행동적 측면이 강조된 '진로준비행동'이라는 두 개의 차원을 준거로 하여 국립 사범대학생 879명을 대상으로 4가지 타입으로 유형화하는 작업을 시도하였으며, 연구 결과 4가지 타입이 모두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후 진로발달 과정에서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불일치 문제를 토대로 한 이차원적 진로 유형화에 대한 연구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수 진행되었으며(유은주, 2007; 임지영, 2009; 진미경, 2000; 최영미, 1998; 홍후조·안영수, 2001), 김연중·손은령(2012)의 경우에는 인지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의 부조화에 따른 진로발달 유형화 방법을 활용하여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이차원적 진로 유형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한편, 김봉환·김계현(1997)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두 차원에 따라 구분되는 4가지 유형을 A타입(이상적 타입, ideal type), B타입(진지하지 못한 타입, pseudo type), C타입(행동지향적 타입, behavioral type), D타입(미성숙 타입, immature type)으로 명명하였다. A타입은 진로결정수준이 높으며 진로준비행동도 매우 활발한 집단으로,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인 사고를 거쳐 확실히 결정한 가운데 그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유형이다. B타입은 진로결정수준은 높으나 그에 수반되는 진로준비행동이 매우 부족한 집단으로, 진로를 결정했다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미약하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못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C타입은 진로결정수준은 낮으나 진로준비행동은 매우 높은 집단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뚜렷한 방향감이 없으면서 진로와 관련하여 무엇인가 매우 활발히 추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D타입은 진로결정수준도 낮고 진로준비행동도 매우 빈약

한 집단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뚜렷한 방향감도 없고 실제적인 진로준비행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 Ⅲ. 연구 방법

#### 1. 분석 자료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발달을 이차원적으로 유형화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특성 및 진로지도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2011년에 실시된 ‘고졸자 취업진로조사(HSGOMS)’ 자료를 활용하였다. ‘고졸자 취업진로조사’는 미(未)진학 고등학교 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격년 주기로 실시하는 횡단면 조사로, 2010년 기준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010년 12월부터 예비 코호트조사를 거쳐 약 10,000명의 마스터 표본을 구축하고 이듬해인 2011년 5월에 약 5,7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2011년 조사에서는 최종표본으로 일반고 졸업생 714명, 특성화고 졸업생 5,281명이 추출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응답한 결과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 2.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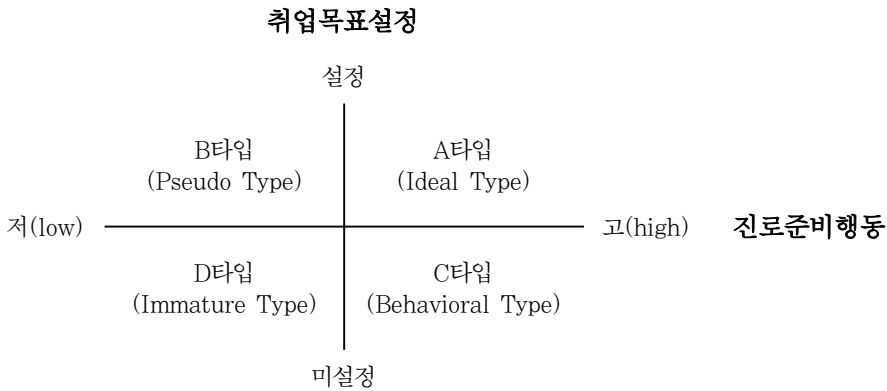
##### 가. 진로발달 유형화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발달 유형화를 위해 김봉환·김계현(1997)이 제시한 진로발달의 이차원적 유형화 개념을 활용하였다. 즉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준거로 한 유형화 개념을 활용하여,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취업목표 설정 여부와 진로준비행동의 두 차원을 기준으로 ① 취업목표 설정/진로준비행동 고(高) 집단, ② 취업목표 설정/진로준비행동 저(低) 집단, ③ 취업목표 미(未)설정/진로준비행동 고(高) 집단, ④ 취업목표 미(未)설정/진로준비행동 저(低) 집단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취업목표 설정 여부와 진로준비행동을 기준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발달 유형화를 위한 기본틀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취업목표 설정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진로발달 유형화의 틀



취업목표 설정 여부는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설문문항 중 졸업 이전에 설정했던 취업목표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응답한 문항을 활용하였는데, 이때의 취업목표는 단순히 고교 재학 시에 희망한 미래의 일자리 또는 직업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에 대한 정보탐색 이상의 최소한의 노력을 한 경우를 의미하였다. 따라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진로결정수준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의 접근과는 차이가 있으나, 이 연구의 관심인 ‘고교 재학 시에 취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진로준비행동은 ‘고등학교 재학 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수행한 행동들의 경험’에 대해 5점 Likert 척도를 활용하여 질문한 문항을 활용하였는데, 이때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중앙치(median)을 기준으로 고(高) 집단과 저(低)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기존에 개발된 진로준비행동 검사(김봉환, 1997) 또는 이와 개념적으로 유사한 진로탐색행동 검사(최동선, 2003)의 경우, 앞으로의 진로선택이나 준비를 위해 수행한 행동들에 대해 자신의 인식에 근거하여 4점(1=전혀 그렇지 않다~4=아주 그렇다) 또는 5점(1=거의 하지 않았다~5=매우 많이 하였다) Likert 척도에 맞춰 응답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이를 고려할 때 이 연구에서 활용한 문항의 내용과 척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진로준비행동 문항 및 이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통계 자료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lt;표 1&gt;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수준

문항	평균	표준편차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적이 있다.	3.36	1.155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이메일, 전화 등)을 해 본적이 있다.	2.33	1.177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동영상이나 TV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2.83	1.202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 해 본적이 있다.	2.38	1.201
나의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다.	2.40	1.169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적성이나 흥미,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받아 본적이 있다.	2.76	1.191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기 위해 학원수강이나 자격증 취득을 준비해본 적이 있다.	2.98	1.235
전체	2.72	0.819

주: N=5,280, 5점 Likert 척도임(1=전혀 없음~5=매우 많음).

#### 나. 진로발달 유형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발달 유형화 결과를 토대로, 개인특성 및 진로지도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성 검증과 다항로지분석(multi-nominal logi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 출신고 계열, 학교성적, 전문계열 고교선택 이유, 전공 선택 이유, 동일전공 재(再)선택 여부 등의 개인특성 변인에 따른 진로발달 유형별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위해 독립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진로발달 유형과 개인특성 및 진로지도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항로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항로지분석 결과를 통해 개인특성 변인을 포함한 다른 독립변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해당 변인이 특정한 진로발달 유형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측치는 완전제거(listwise deletion)하여 유효사례 수로 계산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으로는 SPSS 18.0을 활용하였다. 분석에 투입된 변인들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개인특성 및 진로지도 만족도 관련 변인 구성

변인		설명
개인 특성	성별	남성=1, 여성=0
	출신고 계열	· 농업=1, 공업=2, 상업=3, 수산해양=4, 가사실업=5, 종합=6 ※ 다항로짓분석 시, 출신고 계열(공업)은 공업은 1, 아니면 0으로 재분류, 출신고 계열(상업)은 상업은 1, 아니면 0으로 재분류
	학교성적	하위권=1~상위권=5
	전문계열 고교선택 이유	· 성적에 맞춰서=1, 부모/교사 권유=2, 친구/선배 권유=3, 대학진학에 유리할 것 같아서=4, 졸업 후 취업을 위해=5, 기타=6 ※ 다항로짓분석 시, '성적에 맞춰서'라고 응답한 경우는 1, 아니면 0으로 재분류
	전공 선택 이유	· 직업/취업 전망이 밝아서=1, 성적에 맞춰서=2, 학문적 흥미/적성 고려=3, 부모/교사 권유=4, 친구/선배 권유=5, 사회적 인식/명성=6, 기타=7 ※ 다항로짓분석 시, 성적에 맞춰서라고 응답한 경우는 1, 아니면 0으로 재분류
	동일 전공 재(再)선택	그렇다=1, 아니다=0
학교 진로 지도 만족도	교과목을 통한 진로지도	경험 여부 및 만족도를 활용한 Likert 척도(1~6)
	진로 관련 강연	
	직업정보 제공 및 안내	
	진로 관련 검사 실시	
	직업체험경험	
학교 취업 지원 만족도	졸업 후 진로 관련 진로상담/지도	경험 여부 및 만족도를 활용한 Likert 척도(1~6)
	기술습득 및 자격증 취득 지원	
	구직 및 취업상담	
	취업정보 제공	
	이력서 작성 및 면접 등 구직지도	
가정 진로 지도 빈도	취업알선 및 동행지도	경험 여부 및 빈도를 활용한 Likert 척도(1~6)
	나의 적성/흥미 등에 대한 대화	
	직업/학교/학과 선택에 대한 대화	
	가족의 직장방문	
	직업/학교/학과에 대한 정보 찾기	

## IV. 연구 결과

### 1. 진로발달의 이차원적 유형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취업목표 설정 여부와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준거로 하여 유형화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취업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진로준비행동 수준도 낮은 D타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31.3%), 그 다음으로 취업목표를 설정하고 진로준비행동 수준도 높은 A타입(29.9%), 취업목표는 설정하지 않았으나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높은 C타입(25.0%), 취업목표는 설정하였으나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낮은 B타입(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도 없고 실제적인 진로준비행동도 매우 빈약한 D타입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으며, 진로목표 설정 및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이상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A타입은 D타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전체적으로는 졸업 이전에 구체적인 취업목표를 설정한 집단(A+B=43.7%)보다 취업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집단(C+D=56.3%)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도 고교 재학 시 구체적인 취업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과반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네 가지 유형별 사례수 및 비율

구분	사례수(명)	백분율(%)
A타입(Ideal Type)	1,578	29.9
B타입(Pseudo Type)	728	13.8
C타입(Behavioral Type)	1,318	25.0
D타입(Immature Type)	1,656	31.3
합계	5,280	100.0

한편, 진로발달 유형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전체적으로 A타입과 C타입에 비해 B타입과 D타입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후검증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진로준비행동의 평균이 A>C>B>D 형태로 나타났다. 다만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가장 높은 A타입의 경우에도 전체 평균이 3.38로, '보통(3.0)'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특성화고 학생들의 전반적인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진로발달 유형별 진로준비행동 수준

항목	평균(표준편차)				F	Scheffe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관심 직업에 대한 인터넷 검색	4.00 (.805)	3.06 (1.188)	3.80 (.750)	2.54 (1.141)	746.766***	A>C>B>D
관심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	2.97 (1.163)	1.53 (.800)	2.93 (1.042)	1.60 (.699)	898.415***	A,C>B,D
관심 직업에 대한 동영상/TV 시청	3.51 (1.006)	2.24 (1.173)	3.35 (.889)	2.04 (.989)	792.966***	A>C>B>D
관심 직업 종사자와의 만남	3.09 (1.163)	1.53 (.793)	2.98 (1.003)	1.60 (.739)	1017.992***	A>C>B,D
진로문제와 관련한 자발적 상담	3.12 (1.094)	1.65 (.838)	2.92 (.987)	1.63 (.775)	955.288***	A>C>B,D
진로와 관련하여 검사 실시	3.42 (.987)	2.12 (1.115)	3.28 (.895)	1.99 (1.006)	787.519***	A>C>B>D
학원수강/자격증 취득 준비	3.58 (1.048)	2.43 (1.248)	3.46 (.908)	2.27 (1.146)	554.713***	A>C>B>D
합계	3.38 (0.517)	2.08 (0.430)	3.24 (0.447)	1.95 (0.488)	3379.499***	A>C>B>D

주: \*\*\*p<.001

## 2. 개인특성 변인에 따른 진로발달 유형 분포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발달 유형이 성별, 출신고 계열, 학교성적, 전공 선택 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진로발달 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표 5>와 같은데, 남자의 경우 D타입(34.2%)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여자는 A타입(34.0%)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남자에 비해 여자가 진로발달에 있어서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5&gt; 성별에 따른 진로발달 유형 분포

(단위: 명, %)

구분	A타입 (Ideal Type)	B타입 (Pseudo Type)	C타입 (Behavioral Type)	D타입 (Immature Type)	전체
남자	769 (26.5)	389 (13.4)	750 (25.9)	991 (34.2)	2,899 (100.0)
여자	809 (34.0)	339 (14.2)	568 (23.9)	665 (27.9)	2,381 (100.0)
전체	1,578 (29.9)	728 (13.8)	1,318 (25.0)	1,656 (31.4)	5,280 (100.0)

주:  $X^2=43.355^{***}$ ,  $df=3$ ,  $^{***}p<.001$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발달 유형이 출신고 계열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출신고 계열은 계열별 사례수를 고려하여 공업과 상업계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업계열 학생들의 A타입 비중(32.4%)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반면, D타입 비중(29.7%)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업계열의 경우 A타입 비중(26.9%)은 가장 낮고, D타입 비중(33.1%)은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출신고 계열에 따라 진로발달 유형 분포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상업계열 학생들이 공업계열 학생들에 비해 진로발달에 있어서 보다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는 비율이 높았다.

&lt;표 6&gt; 출신고 계열에 따른 진로발달 유형 분포

(단위: 명, %)

구분	A타입 (Ideal Type)	B타입 (Pseudo Type)	C타입 (Behavioral Type)	D타입 (Immature Type)	전체
공업	651 (26.9)	339 (14.0)	628 (26.0)	800 (33.1)	2,418 (100.0)
상업	764 (32.4)	311 (13.2)	582 (24.7)	699 (29.7)	2,356 (100.0)
기타	163 (32.2)	78 (15.4)	108 (21.3)	157 (31.0)	506 (100.0)
전체	1,578 (29.9)	728 (13.8)	1,318 (25.0)	1,656 (31.4)	5,280 (100.0)

주: 1) 출신고 계열 분포: 농업 261명(4.9%), 공업 2,418명(45.8%), 상업 2,356명(44.6%), 수산해양 89명(1.7%), 가사실업 88명(1.7%), 종합 68명(1.3%)

2)  $X^2=22.934^{**}$ ,  $df=6$ ,  $^{**}p<.01$

<표 7>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성적에 따른 진로발달 유형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학교성적이 상위권에 속할수록 A타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학교성적이 하위권에 속할수록 D타입의 비중이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학교성적이 우수한 집단일수록 취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진로준비 행동도 활발히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반면 학교 성적이 하위권에 속하는 집단일수록 졸업 후 취업에 대한 목표도 명확하지 않고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준비행동의 수준도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7> 학교성적에 따른 진로발달 유형 분포

(단위: 명, %)

구분	A타입 (Ideal Type)	B타입 (Pseudo Type)	C타입 (Behavioral Type)	D타입 (Immature Type)	전체
상위권	228 (44.6)	69 (13.5)	111 (21.7)	103 (20.2)	511 (100.0)
중상위권	487 (35.8)	202 (14.8)	346 (25.4)	327 (24.0)	1,362 (100.0)
중위권	463 (25.5)	219 (12.0)	507 (27.9)	630 (34.6)	1,819 (100.0)
중하위권	277 (25.4)	173 (15.8)	263 (24.1)	379 (34.7)	1,092 (100.0)
하위권	123 (24.8)	65 (13.1)	91 (18.3)	217 (43.8)	496 (100.0)
전체	1,578 (29.9)	728 (13.8)	1,318 (25.0)	1,656 (31.4)	5,280 (100.0)

주:  $X^2=1382.860^{***}$ ,  $df=12$ ,  $^{***}p<.001$

전문계열 고교를 선택한 이유에 따라 진로발달 유형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대학진학에 더 유리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집단이 '기타'를 제외하면 A타입의 비중은 가장 높고(39.2%), D타입의 비중은 가장 낮았던 반면(18.4%), '성적에 맞춰서'라고 응답한 집단이 A타입은 22.2%로 비중이 가장 낮은 반면, D타입은 37.8%로 가장 높았다. 한편, A타입이 4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기타'의 경우, '미래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다. 이를 종합하면 다른 뚜렷한 목표 없이 성적에 맞춰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된 목표설정 및 준비행동과 관련하여 가장 소극적이고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lt;표 8&gt; 전문계열 고교선택 이유에 따른 진로발달 유형 분포

(단위: 명, %)

구분	A타입 (Ideal Type)	B타입 (Pseudo Type)	C타입 (Behavioral Type)	D타입 (Immature Type)	전체
성적	429 (22.2)	266 (13.8)	508 (26.3)	731 (37.8)	1,934 (100.0)
부모/교사 권유	222 (30.4)	98 (13.4)	180 (24.7)	230 (31.5)	730 (100.0)
친구/선배 권유	43 (24.9)	23 (13.3)	53 (30.6)	54 (31.2)	173 (100.0)
대학진학 유리	121 (39.2)	49 (15.9)	82 (26.5)	57 (18.4)	309 (100.0)
졸업 후 취업	684 (34.9)	271 (13.8)	455 (23.2)	548 (28.0)	1,958 (100.0)
기타	78 (45.6)	20 (11.7)	37 (21.6)	36 (21.1)	171 (100.0)
전체	1,577 (29.9)	727 (13.8)	1,315 (24.9)	1,656 (31.4)	5,275 (100.0)

주:  $X^2=143.065^{***}$ ,  $df=15$ ,  $^{***}p<.001$

전공을 선택한 주된 이유에 따라 진로발달 유형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A타입의 경우 '학문적 흥미 및 적성을 고려해서' 전공을 선택했다고 응답한 집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41.7%), 반면 '성적에 맞춰서'라고 응답한 집단이 가장 낮은 비중(23.2%)을 보였다. 또한 D타입의 경우 '사회적 인식이나 명성 때문'(20.0%), '학문적 흥미 및 적성을 고려해서'(22.3%)라고 응답한 집단이 낮은 비중을 보였던 반면, '성적에 맞춰서'라고 응답한 집단이 3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계열 고교선택 이유와 마찬가지로, 다른 뚜렷한 목표 없이 성적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진로발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을 보다 많이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9> 전공 선택 이유에 따른 진로발달 유형 분포

(단위: 명, %)

구분	A타입 (Ideal Type)	B타입 (Pseudo Type)	C타입 (Behavioral Type)	D타입 (Immature Type)	전체
직업/취업 전망	530 (30.4)	244 (14.0)	446 (25.5)	526 (30.1)	1,746 (100.0)
성적	377 (23.2)	227 (13.9)	413 (25.4)	611 (37.5)	1,628 (100.0)
학문적 흥미/적성	393 (41.7)	113 (12.0)	226 (24.0)	210 (22.3)	942 (100.0)
부모/교사 권유	198 (29.2)	95 (14.0)	163 (24.1)	221 (32.6)	677 (100.0)
친구/선배 권유	56 (28.6)	29 (14.8)	43 (21.9)	68 (34.7)	196 (100.0)
사회적 인식/명성	13 (28.9)	9 (20.0)	14 (31.1)	9 (20.0)	45 (100.0)
기타	9 (27.3)	5 (15.2)	9 (27.3)	10 (30.3)	33 (100.0)
전체	1,576 (29.9)	722 (13.7)	1,314 (24.9)	1,655 (31.4)	5,267 (100.0)

주:  $X^2=123.390^{***}$ ,  $df=18$ ,  $^{***}p<.001$

마지막으로, 전공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동일 전공을 다시 선택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진로발달 유형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그렇다'고 응답한 집단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A타입의 비중(33.2%)은 높고, D타입의 비중(30.1%)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렇다'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에도 D타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A타입과 많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10> 동일 전공 재(再)선택 의사 여부에 따른 진로발달 유형 분포

(단위: 명, %)

구분	A타입 (Ideal Type)	B타입 (Pseudo Type)	C타입 (Behavioral Type)	D타입 (Immature Type)	전체
그렇다	968 (33.2)	365 (12.5)	703 (24.1)	876 (30.1)	2,912 (100.0)
아니다	610 (25.8)	363 (15.3)	615 (26.0)	780 (32.9)	2,368 (100.0)
전체	1,578 (29.9)	728 (13.8)	1,318 (25.0)	1,656 (31.4)	5,280 (100.0)

주:  $X^2=37.010^{***}$ ,  $df=3$ ,  $^{***}p<.001$

### 3. 진로발달 유형과 개인특성 및 진로지도 만족도와의 관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개인특성과 진로지도 만족도가 특정한 진로발달 유형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항로짓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이때, 집단과 집단 간의 쌍 비교만이 가능한 다항로짓모형의 한계를 고려하여 가장 유의미한 집단이라고 판단되는 A타입을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해당 유형이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분석의 시사점이 가장 많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표 11> 진로발달 유형과 개인특성 및 진로지도 만족도와의 관계

구분	B타입 <sup>1)</sup> (Pseudo Type)		C타입 <sup>1)</sup> (Behavioral Type)		D타입 <sup>1)</sup> (Immature Type)		
	B	Exp(B)	B	Exp(B)	B	Exp(B)	
개인 특성	성별(남자)	-.072	.930	.205*	1.228	.147	1.159
	출신고 계열(공업)	.099	1.104	.342*	1.407	.277*	1.320
	출신고 계열(상업)	-.081	.922	.322*	1.380	.253	1.288
	학교성적	-.080	.923	-.052	.949	-.197***	.821
	전문계열 고교선택 이유(성적)	.264*	1.301	.369***	1.446	.414***	1.513
	전공 선택 이유(성적)	.155	1.168	.170	1.185	.315***	1.370
	동일 전공 재(再)선택(그렇다)	-.296**	.744	-.209**	.812	-.063	.939
학교 진로 지도 만족도	교과목을 통한 진로지도	-.008	.992	.081*	1.084	.119***	1.126
	진로 관련 강연	-.078*	.925	-.041	.960	-.153***	.858
	직업정보 제공 및 안내	.062	1.064	-.013	.987	.107*	1.112
	진로 관련 검사 실시	-.044	.957	-.096*	.908	-.189***	.828
	직업체험 경험	-.024	.977	-.036	.965	-.013	.987
	졸업 후 진로 관련 진로상담/지도	-.079*	.924	.061*	1.063	-.049	.952
학교 취업 지원 만족도	기술습득 및 자격증 취득 지원	.024	1.024	-.041	.960	-.058	.944
	구직 및 취업상담	-.093*	.911	.032	1.033	.050	1.052
	취업정보 제공	-.020	.980	-.020	.980	.049	1.050
	이력서 작성 및 면접 등 구직지도	.140**	1.150	-.003	.997	-.016	.984
가정 진로 지도 만족도	취업알선 및 동행지도	.014	1.015	.006	1.006	-.055*	.947
	나의 적성/흥미 등에 대한 대화	-.100*	.905	-.006	.994	-.138***	.871
	직업/학교/학과 선택에 대한 대화	-.019	.981	-.091*	.913	-.125**	.882
	가족의 직장방문	-.085	.918	-.051	.950	-.086*	.918
	직업/학교/학과에 대한 정보 찾기	-.255***	.775	-.058*	.944	-.295***	.745

주: 1) 준거집단(reference group): A타입(Ideal Type)

2) \*p<.05, \*\*p<.01, \*\*\*p<.001

첫째, 개인특성 변인의 경우, 전문계열 고교진학 시 성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선택한 경우에 A타입에 속할 확률이 1.3~1.5배 정도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 전공을 재(再)선택할 의사가 있는 경우 B와 C타입보다는 A타입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출신고 계열은 유형에 따라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는 못했는데, 남자는 A보다는 C타입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출신고 계열이 공업인 경우 A보다 C와 D타입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신고 계열이 상업인 경우에는 A보다 C타입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학교성적의 경우, 성적이 우수할수록 D타입에 대해서만 A타입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적에 맞춰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한 경우 A타입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는 반면,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A타입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주목할 만 한 점은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전문계열 고교 및 전공 선택 시 성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선택한 경우 D타입보다는 A타입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고려할 때 D타입은 학교성적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둘째, 학교 진로지도 만족도 변인에서는 모든 유형에 걸쳐 일관되게 A타입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특히 '교과목을 통한 진로지도'나 '직업정보 제공 및 안내', '졸업 후 진로 관련 진로상담/지도'에서는 만족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A타입이 아닌 다른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도 나타났다. 다만 전반적으로 학교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은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진로 관련 강연' 및 '진로 관련 검사 실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A타입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학교 취업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발달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구직 및 취업상담'의 B타입과 '취업알선 및 동행지도'의 D타입에서만 해당 변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A타입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력서 작성 및 면접 등 구직지도'의 경우에는 만족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A타입보다는 B타입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넷째,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빈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A타입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에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 직업/학교/학과선택 등에 대한 대화가 자주 이루어질수록 D타입에 비해서는 A타입에 속할 확률이 일관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2011년에 실시된 ‘고졸자 취업진로조사(HSGOMS)’ 자료를 활용하여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이차원적으로 유형화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특성 및 진로지도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취업목표 설정 여부와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기준으로 A타입(취업목표 설정/진로준비행동 고(高) 집단), B타입(취업목표 설정/진로준비행동 저(低) 집단), C타입(취업목표 미(未)설정/진로준비행동 고(高) 집단), D타입(취업목표 미(未)설정/진로준비행동 저(低) 집단)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유형과 개인특성(성별, 출신고 계열, 학교성적, 전문계열 고교선택 이유, 전공 선택 이유, 동일 전공 재(再)선택 여부) 및 진로지도 만족도(학교 진로지도 만족도, 학교 취업지원 만족도, 가정 진로지도 빈도)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발달 유형을 분석한 결과, A타입(29.9%), B타입(13.8%), C타입(25.0%), D타입(31.3%)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미성숙한 유형인 D타입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진로목표 설정 및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가장 성숙한 유형인 A타입, 취업목표는 설정하지 않았으나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높은 행동지향적 유형인 C타입, 취업목표는 설정하였으나 진로준비행동이 부족한 집단인 B타입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졸업 이전에 구체적인 취업목표를 설정한 집단(43.7%)보다 취업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집단(56.3%)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고교 졸업 후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교 재학 시 구체적인 진로 및 취업목표 설정에 대한 교육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진로준비행동 역시 전체 평균이 2.72로 ‘보통(3.0)’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이미 특정 분야에 대한 취업을 결정하고 고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아 직업분야에 대한 탐색이나 준비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

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고교 졸업 직후 직업 세계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탐색 및 준비활동은 여전히 중요하며, 특히 이러한 준비행동이 구체적인 취업목표 설정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로준비 및 탐색행동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개인특성 변인에 따른 진로발달 유형 분포를 분석한 결과, '성별', '출신고 계열', '학교성적', '전문계열 고교선택 이유', '전공 선택 이유', '동일 전공 재(再)선택 의사 여부' 등의 모든 변인에서 진로발달 유형 분포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A타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신고 계열에 있어서는 공업에 비해 상업계열 학생들이 진로 발달 유형과 관련하여 보다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학교 성적의 경우에는 상위권일수록 A타입의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D타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계열 고교 및 전공 선택 이유에 따른 진로발달 유형 분포를 확인한 결과, 뚜렷한 목표 없이 성적에 맞춰서 전문계열 고교 및 전공을 선택한 학생집단에서 A타입의 비중은 가장 낮은 반면, D타입의 비중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동일 전공을 재(再)선택할 의사가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A타입의 비중은 높은 반면 D타입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학교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또한 전문계열 고교진학 시 진학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나 목표가 있는 학생일수록 졸업 후 진로목표 설정이나 진로개발을 위한 준비행동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성숙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성화고 선택의 자발성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분석한 김동규(2012)의 연구 결과를 보면, 특성화고 및 전공 선택 시 뚜렷한 목표를 갖고 진학한 학생들, 특히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고용형태, 임금, 직장만족도 등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체적인 이유나 목표를 갖고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목표 설정 및 준비행동과 관련하여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며, 이러한 학생들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성화고 입학생 선발에 있어서 특성화고 진학에 대한 뚜렷한 이유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다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진로발달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학교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모든 유형에 걸쳐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A타입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특히 일부 변인의 경우 만족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A타입이 아닌 다른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교과목을 통한 진로지도'는 만족도가 높을수록 A보다는 C와 D타입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정보 제공 및 안내'는 만족도가 높을수록 A보다는 D타입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통한 진로지도나 직업정보 제공 등의 프로그램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학교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별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되, 이와 함께 학생들이 졸업 후 구체적인 취업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 취업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발달 유형에 전반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정에서의 진로지도는 그 빈도가 높을수록 다른 유형에 비해 A타입에 속할 확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취업지원 활동이 재학생들의 진로발달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학교에서의 진로지도보다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대화나 활동이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성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김강호(2009)의 연구 결과나 가정 내 진로지도가 특성화고 고졸청년층의 직장 만족도, 임금, 고용형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김동규(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과 더불어 가정에서 자녀의 진로와 관련하여 꾸준한 대화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2013). 『올해 전국의 특성화·마이스터고 취업률 48.5%,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3. 1. 22).』
- 김강호(2009). 『전문계 고등학교 진로지도 활동이 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제28권 제4호, 183~200쪽.
- 김동규(2012). 『특성화고 선택의 자발성이 고졸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제31권 제3호, 25~42쪽.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김계현(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제9권 제1호, 311~333쪽.
- 김성남·최수정(2012). 『청년기의 교육 및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화: 고교계열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제31권 제3호, 227~249쪽.
- 김연중·손은령(2012). 『대학생의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이차원적 진로유형과 학습행동과의 관계』, 『상담학 연구』, 제13권 제5호, 2443~2461쪽.
- 김영순·손진희(2012). 『특성화고교 학생의 진로관련 연구동향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5권 제1호, 51~75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희경·김우영(2005).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결정 동기에 관한 연구: 개인, 가정, 학교의 역할』, 『직업능력개발연구』, 제8권 제2호, 47~83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안선영·이경상(2009). 『중등교육단계 청소년 진로결정요인 및 결과: 고등학교 계열선택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제6권 제4호, 81~99쪽.
- 오석영(2012).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결정요인 분석: 서울지역 진로결정 집단별 비교』, 『직업교육연구』, 제31권 제3호, 135~151쪽.
- 유은주(2007). 『예술고등학교 무용과 학생의 진학결정·진학준비 행동유형에 따른 불안과 자기효능감의 차이』,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건남(2008). 『고등학생의 대학진공선택 프로그램 모형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백령·김민배·문승태(2012). 『농업계 특성화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 직업가치관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제25권 제1호, 53~72쪽.
- 이지혜·정철영(2010).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장벽과 관련 변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42권 제1호, 25~47쪽.
- 임지영(2009). 『공대생들의 진로발달의 이차원적 유형화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 『한국공학교육학회』, 제12권 제3호, 13~20쪽.
- 진미경(2000).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진로유형화와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동선(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 요인 및 애착의 관계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동선·이수경·김나라·정진철(2010). 『전문계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동선·이중범(2013). 『특성화고 졸업 취업자의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업교육연구』, 제32권 제1호, 1~21쪽.
- 최영미(1998).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네 가지 유형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산업계고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후조·안영수(2001).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학결정수준과 진학준비행동수준에 따른 진학준비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제7권 제1·2호, 193~226쪽.
- Crites, J. O.(1969). *Problems in Vocational Choice*, Vocational Psychology, New Your: McGraw-Hill.
- Fuqua, D. R. & Hartman, B. W.(1983). "Differenti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Personnel of Guidance*, Vol.62, pp. 27~29.
- Gordon, V. N.(1995). *The Undecided College Student(2nd ed.)*. Illinois: Thomas Books.
- Lowe, B.(1981). "The Relationship between Vocational Interest Differentiation and Career Undecidedn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9, pp. 346~349.
- Osipow, S. H. & Reed, R.(1985). "Decision Making Style and Career Indecis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7, pp. 368~373.



- Savickas, M. L.(1989). "Annual Review: Practice and Research in Career Counseling and Development, 1988",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38, pp. 110~134.
- Tuckman, B. W.(1974). "An Age-graded Model for Career Development Educ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4, pp. 193~212.
- Walsh, W. B. & Lewis, R. O.(1972). "Consistent, Inconsistent and Undecided Caree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 pp. 309~316.
- Wanberg, C. & Muchinsky, P. M.(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9, pp. 71~80.

## Abstract

---

# A Study on the Types of Career Development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Kim Seoungnam

Referencing data from the High School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HSGOMS),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types of career development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satisfaction to career guidance and the types of career development. When the two variables including goal setting for getting a job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r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four different types of career development are obtained: ideal, pseudo, behavioral and immature typ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distribution ratio of the types of career development is as follows: ideal type(29.9%), pseudo type(13.8%), behavioral type(25.0%); and immature type(31.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career development and some of variables concern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to career guidanc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is results, some implications on career guidance and edu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 are suggested.

**Key word:** Vocational high school, Types of career development, Goal setting for getting a job, Career preparation behavior